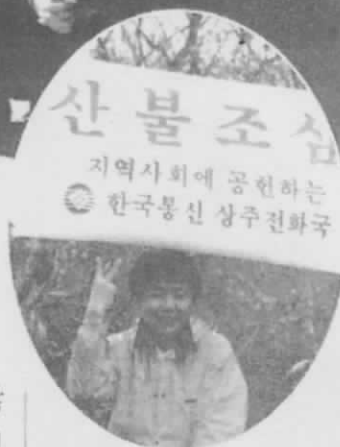




이어갔다. 마치 자신을 수련하듯.

지난 95년 2월 임그루 조합원은 사보를 통해 「전화번호 지정규정,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」라는 글을 실었다. 전화 가입자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업무의 특성 등으로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. 그는 당시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, 그 대안을 사보에 실고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. 현재 전화번호 지정규정은 가입자들의 편의 위주로 바뀌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. 임그루 조합원의 제안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큰 열거는 제안과 비슷하다. 전화번호 지정규정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



한 발 더 나아가
자신을 포함한
땀 흘리는 사람,
바로 한국통신노동조합
조합원들과 긴밀하게
삶을 나눌 수 있으면...

임그루 조합원과 같은 숨은 일꾼들이 있어 가능했으리라. 또한 그러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사회는 더 밝고 건강해질 것이다.

『아침』과 자리한 임그루 조합원 곁에 같은 정수직업훈련원 동기이기도 한 상주전화국 조수진 지부장이 함께 했다. 조 지부장은 임그루 조합원이 조합 집회에는 꼭꼭 참석하고는 있지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한 마디 한다. "그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갈고 닦아 왔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을 포함한 땀 흘리는 사람, 바로 한국통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긴밀하게 삶을 나눌 수 있으면..." 오랜 친구의 한 마디. 아프게 귀담아 들어 더욱 큰 나무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. 그리하여 그와 함께 척박한 땅, 저마다 무성히 푸른 잎을 단 나무로 한국통신 조합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.

아침

「아침이 만난 사람」은 조합원들의 살아 가는 모습을 서로에게 알리는 란입니다. 동료 조합원들 가운데 함께 알리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연락주십시오. 꼭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. 여러분의 삶을 진솔하게 소개하겠습니다.